

강 의 계 획 서

강좌명	여행, 인문학에 담다 : 유럽편		강사명	박선정
강의일정	2025년 10월 17일 ~ 11월 21일 금요일 14:00 ~ 16:00		강의장소	문화교실
대상	성인			
강의목표	■ 유럽의 구도심을 중심으로 여행을 즐거움을 누리면서 문학과 예술을 논한다.			
강사소개	■ 인문학당 달리 소장 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외래교수 ■ 국제신문 인문, 여행 칼럼니스트			
준비물 (준비사항)	■ 개인 준비물 없음			
강의내용	차시 (월/일)	세부목표 / 내용		
	1 (10/17)	■ 유럽여행을 위한 준비: 서양 미술사 정리 유럽 여행은 뮤지엄 투어가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다. 이를 위해서 서양 미술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.		
	2 (10/24)	■ 합스부르크 가문과 함께 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650여년을 이어왔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역사를 정리하고, 그 중심이었던 오스트리아와 그 중심의 수도 비엔나를 여행한다. 빈 미술사 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등을 거닐며, 역사와 함께 그들이 이루어놓은 문화와 예술의 세계를 경험한다.		
	3 (10/31)	■ 카프카를 담은 도시: 체코의 프라하 체코의 역사와 예술 문학을 담은 하나의 거대한 뮤지엄과 같은 도시, 프라하의 골목을 누빈다. 체코의 대표적인 작가인 카프카를 그를 담은 예술 작품들과 함께 사유한다.		
	4 (11/7)	■ 르네상스의 시작: 피렌체 르네상스의 시작을 함께 한 '꽃'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, 피렌체를 걷는다. 도시 곳곳에 널려있는 건축과 예술 작품들과 함께 르네상스를 배운다.		
	5 (11/14)	■ 모든 길은 로마로: 이탈리아 로마 서양의 역사를 쓴 '로마'를 역사와 함께,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<로마의 휴일> 속 장면 및 주요 명화 및 조각들과 함께 감상하며 함께 걷고, 인문학적 사유를 논한다.		
	6 (11/21)	■ 이탈리아 속의 '이방인': 나폴리 나폴리의 역사와 함께 나폴리의 골목을 누비며,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, 나폴리의 속을 들여다 봄으로써, 도시 안에 담긴 인간에 대한 철학과 역사를 되새겨본다.		
기대효과	■ 유럽의 도시와 예술에 대한 사유를 여행을 빌려 이야기 해본다. ■ 역사와 문화가, 예술과 문학이 결합되며 그 안에 담긴, 그것을 만들어 낸 인간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.			